

지역 매아리

부안 행안면 최승열씨 이웃돕기성금 100만원 기탁

부안군 행안면 계시마을에 거주하는 최승열(84)씨가 지난 28일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성금 100만 원을 행안면사무소에 기탁했다.



최씨는 "산업화된 사회구조 속에서 불우이웃돕기와 경로효친 사상이 날로 희석되어 가고 있음을 안타깝게 느끼고 남은 삶 속에서 헌신하여 불우이웃을 위해 온정을 베풀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행안면 저소득 노인가구 및 조손 가정, 한 부모가정 에 전달될 예정이다.

/부안=이옥수기자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전력질주

박우정 고창군수, 산림청 찾아 2건의 지역 현안사업 정부예산 반영 건의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지난 28일 산림청(청장 김재현)을 방문해 2018년 국가예산 사업인 문수산 편백 숲 공간 재창조사업(110억)과 2019년에 추진 예정인 임목부산물 자원화 사업(16억) 등 총 2건의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박 군수는 현 정부의 공약사업인 노령산맥권 휴양 치유벨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문수산 편백 숲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힐링·치유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문수산 편백 숲 공간 재창조사업'이 2018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국회단체 반영

을 위해 산림청을 직접 방문해 내년도 정부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2019년 시행예정인 '임목 부산물 자원화 사업'에 대한 사전설명과 산림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에서는 문수산 편백 숲 공간 재창조 사업은 산림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군과 협업체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2019년에 추진 예정인 임목 부산물 자원화사업에 대해서는 적은 예산을 투입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사업계획 수립 시 '숲가꾸기 사업량', '자원화 가능 생산량', '시장수요' 및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한 순환자원화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우정 군수는 "고창군은 현재까지 지난해 대비 37% 증가한 1288억이 정부예산에 반영되어 역대 최대액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정부예산안이 모두 확정되는 12월까지 국회와 중앙부처의 지속방문과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의 예산이 확보되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시상식 고창군, 4년 연속 종합대상 수상

고창군이 27일 서울 공덕동에 위치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개최된 제6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시상식에서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종합대상을 4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주관한 이 상은 도시의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자연환경의 보전과 보존이라는 생태적 건강성, 맑고 깨끗한 상하수와 대기관리, 시민생활의 쾌적성과 안전성,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적 개발을 도모하고, 희망적 국토발전의 지표로 제시하고자 대한민국의 친환경도시대상을 매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선정하고 있다.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군은 자연의 현명한 보전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국가지질공원 인증 고창

운곡사사르스지 일원의 생태타운 조성, 주민에게 생태계 서비스 증진을 위한 고창 자연마당 및 고창읍성 생태계 조성 등 군민의 참여 속에서 인공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친환경·생태적 정책을 추진하는 등 환경분야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상식에 참석한 이길수 고창군 부군수는 "민선 6기 고창군이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생태환경 분야에서 4년 연속 수상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전례의 자연환경을 더욱 잘 보전·유지하여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아름다운 청정마을로 고창 건설을 위해 군민과 함께 더욱 힘차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지역방위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 진행

정읍시는 27일 지역 주둔 군부대와 합동으로 전시·사변 등의 비상사태 시 국가 안보 확보를 위해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가졌다.

행사에서는 2017년 총무계획으로 관리되고 있는 15개 동원 업체에 대한 인력 및 차량, 장비 등을 일제히 점검했다.

또한 동원 차량 지정 운용 대책과 사이버 테러에 의한 행정 전산망 복구관리 대책, 전시 폐기물 관리 대책 등에 대한 연구과제 발표와 함께 토론을 통해 문제점 도출과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동원 차량은 1036대가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부적격 차량 70대를 대체 지정 운영키로 했다.

또 동원 지정된 화물자동차 대부분이 영업용으로, 정기 동원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내 보유대 수가 적은 차종은 시·도 광역단위로 지정·관리가 필요한 것으로도 지적됐다.

사이버 테러에 의한 행정 전산망 마비 시 복구와 정상화 대책도 제시됐다.

사이버 위기경보발령시 24시간 모니터링과 전용백신 다운로드 배포, 유지보수업체의 전문 인력 확보 등 사전 근무체계를 확립에 만전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전시 폐기물 관리대책도 밝혔다. 총괄 운영반을 편성하여 생활폐기물의 배출날자 준수, 무단투기, 불법소각 등의 단속을 강화한다.

전쟁 잔해물과 건설 폐기물 등이 발생된 경우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에 맡겨 처리하고 대량 폐기물 발생 업체는 따로 중점 관리 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기자

'찾아가는 전기안전 봉사활동' 펼쳐

정읍시-한전기안전공사 전북서부지사-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 협업

정읍시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서부지사,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가 협업을 통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관련해 지난 25일 3개 기관 소속 전기직 직원들은 북면 학동마을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이후 연 1회씩 전기 관련 합동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봉사활동에는 시청 소속 전기직 직원 18명과 전기안전공사 전북서부지사 직원 22명,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 직원 5명 모두 40여명이 참여한다.

시 관계자는 "담초 전기안전공사 전북서부지사서 전기 재해 없는 마을 운영 사업"을 추진해오던 중 이번 시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참여기로 했다"고 밝혔다.

직원들은 조를 편성해 농촌지역 주택을 가가호호 방문, 전기설비를 점검한다. 이를 통해 불량하고 노후된 설



지난 25일 3개 기관 소속 전기직 직원들은 북면 학동마을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비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은 없는지 등을 살핀다. 또 전동기구와 콘센트, 누전 차단기 등 교체가 필요한 설비는 교체하고 주민들에게 전기설비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특히 현장에서 전기안전이동 상담센터도 운영해 전기 관련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준다는 방침이다.

한편 발대식 당일 직원들은 학동마을(북면)과 태인면 서재마을 총 90세대를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펼쳤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의회, 관내 사회복지시설 위문 격려

정읍시의회(의장, 유진섭)는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정읍관내 24개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위문하면서

풍요롭고 훈훈한 한가위를 만드는 데 앞장섰다.

정읍시의회 의원 17명 전원은 해당 지역구별로 정읍예육원 등 24개 시설

을 방문하여 화장지 등 생활품을 전달하고 원생들과 담화를 나누며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였으며 시설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격려하는 자리를 갖기도 하였다.

유진섭 의장은 "요즘 이웃은 물론 가족간에도 왕래가 드물어 한국인 특유의 정서인 끈끈한 정이 사라져 가

는 것 같아 안타깝다.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나눔 실천과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며 앞으로 정읍시 의회도 사회적 약자를 돕는데 더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읍시 의회는 매년 추석과 설 명절 때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하고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기부 문화를 확산해 나가는데 기여하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신규시책·국가예산 발굴보고회 실시

고창군이 박우정 군수 주재로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새롭게 추진할 신규시책과 2019년·2020년 국가예산 발굴보고회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이름답고 청정한 명품고창 건설'의 완성을 위해 각 부서별로 발굴한 사업에 대해 실현 가능성과 지역발전 역할 등을 검토하고 토의를 거쳐 발굴한 112개 사업에 대해 보고회를 갖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사업의 우선 순위를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군은 또한 민선 7기의 초석을 다질 2019년 신규 국가예산 확보대상사업 49건과 2020년 확보대상사업 15건의 사업 발굴 보고회를 통해 그동안 추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 조급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을 위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찾아 고창군의

미래 발전에 다짐들이 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특히 치적위주의 대형사업 보다는 지역발전의 내실을 튼실하게 다지고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삶의 영위를 비롯해 주민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요소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생물권보전지역 관련 후속사업 등을 발굴 보완해 친자연·친환경지역으로서의 이미지를 선점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시책과 핵심사업 보고회를 통해 보고된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전문가, 지역인토, 행정이 합쳐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 등을 거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경찰서,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 시간 가져

고창경찰서 청문감사실에서는 경찰서장을 비롯 과·계팀장과 지·파출소장 등 전 관리자가 한자리에 모여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준수 서약식을 통해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청탁금지법의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며 위반 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는 것으로

고창경찰서 전 직원이 참여 실천하기로 했다.

박헌수 서장은 "깨끗한 경찰은 경찰 현장에도 명사되어 있듯이 최우선적으로 지켜야하는 것으로 청렴을 한숨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때 비로소 국민들에게 진정한 신뢰받는 경찰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기자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and Gansanmyeongju products, featuring various wine bottles and gift sets.